■ 민족문화연구 제82호(2019.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429-434.
http://doi.org/10.17948/kcs.2018..82.429

【해외한국학자료 소개】

『삽교만록(霅橋漫錄)』 해제

정우봉(鄭雨峰)*

■ 작성주체: 안석경(安錫儆, 1718-1774) 찬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발행처불명], [[正祖10(1786)]]
■ 형태사항
6卷5冊 : 無界, 13行28字 ; 33.0 × 22.8cm
■ 주기사항
・表題: 霅橋漫錄
・序: 崇禎紀元後三丙午(1786)[安]錫任謹序
・印: 在山樓蒐書之一
・藏書記: K. Mayema Setp. 2 1911
■ 현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 청구기호: Ⅶ-3-24



『삽교만록』 표지.

1. 정의

18세기 문인이었던 삽교 안석경이 야담과 개인 일화에서부터 시국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논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신의 견해를 기록해 둔 필기잡록이다.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 편저자사항

안석경(1718-1774)은 자가 숙화(淑華)이며, 호가 완양(完陽), 삽교(霅橋)로서,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그는 농암 김창협 형제의 문인이었던 안중관(安重觀)의 둘째 아들로 충주 가흥에서 태어났다. 안중관은 김창협, 김창흡 등 안동 김문의 문인으로서, 문집으로 『회와집(悔窩集)』을 남겼다. 19세에는 반남 박씨의 딸과 혼인을 올렸다. 20대 초반 부친이 홍천현감과 제천현감으로 부임하였을 때에는 부친의 임지를 따라 지방 생활을 하였다. 23세 되던 해에는 원주 흥원으로 생활 터전을 옮겼다. 이곳은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 유역으로, 옛날부터 수로 교통이 발달하여 영서와 영동 지역의 물품을 서울로 운송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편리한 교통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는 삼십 대 초반까지 과거 시험에 여러 차례 응시했지만, 낙방을 거듭했다.

1752년에 부친이 별세한 뒤에는 시묘생활을 하고, 그 후 1757년에는 원주의 안산(安山)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1765년에 안석경은 강원도 횡성 덕고산 자락에 있던 삽교리로 은거를 하였다. 1767년에는 강원도 관찰사로 있던 민백흥(閔百興)이 안석경을 조정에 천거했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안석경은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은 채 횡성 삽교리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후학들을 가르치는 한편, 저술 활동에 힘을 썼다. 삽교리에는 안석경과 관련된 설화들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힘이 장사였으며, 축지법을 썼고, 천리안을 가졌다”는 등의 내용인데, 안석경이 마을 사람들에게 범상치 않은 인물로 비쳐졌음을 짐작케 한다. 안석경은 1774년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횡성 삽교리에 묻혔다.

안석경의 저술로는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시문을 모은 『삽교집(霅橋集)』, 다양한 방면의 사실과 견문들을 모아놓은 『삽교만록(霅橋漫錄)』, 중국과 우리나라 시문 작품을 비평한 『삽교예학록(霅橋藝學錄)』, 그리고 경전을 풀이하고 분석해 놓은 『삽교지문(霅橋識聞)』이 그것이다. 안석경의 종제인 안석임(安錫任)은 안석경의 저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공의 글은 권질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전집, 후집 및 속집으로 구분하고, 이 책은 따로이 하나로 묶으니, 또한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고를 넷으로 나누어 훗날 차례로 간행하고자 하는 의도와 마찬가지이다. 만록(漫錄)이 몇 편이고, 지문(識聞)이 몇 편이며, 예학록(藝學錄)이 몇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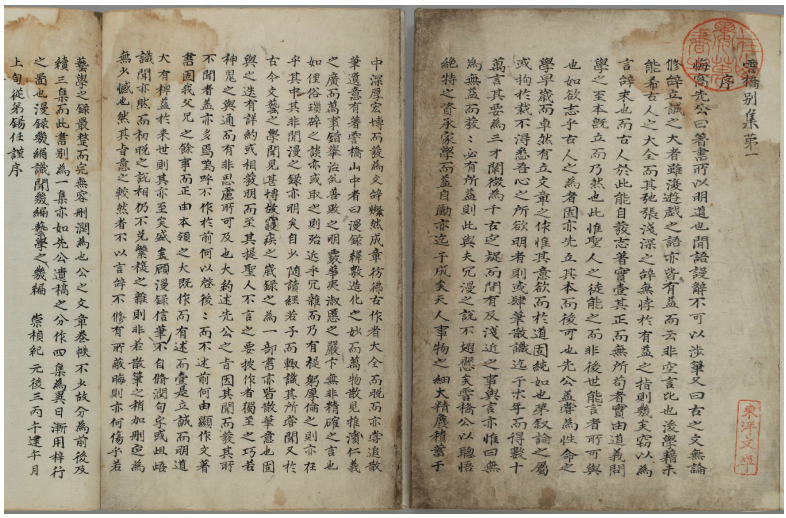
안석경의 저술을 크게 전집(前集), 후집(後集), 속집(續集), 별집(別集)으로 구성하여 간행하고자 계획하였음을 밝히었다. 동양문고 소장본은 『삽교예학록』(3책)과 『삽교만록』(5책)이 하나로 묶여 모두 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구성 및 내용

『삽교만록』은 안석경의 문집 『삽교집』과는 별도로 그의 필기 저술을 모아 놓은 책이다. 모두 6권 5책이며, 각 책은 금목수화토의 오행(五行)으로 이름 붙어져 있다. 여기에는 대략 300여 항목을 넘는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저자가 강원도 횡성 삽교리에 은거하던 시절에 지은 것으로, 1770년부터 1773년 사이에 저술된 것이다.

맨 앞에는 안석경의 동생인 안석임(安錫任)이 1786년에 작성한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 삽교공은 총명하고 빼어난 자질을 갖추고 가학을 계승하여 더욱 스스로 힘써서 성취하는 데에 이르렀다. 하늘과 사람, 사물의 온갖 것들이 가슴 속에 쌓여 있어 깊고 두텁고 폭넓은데,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찬연하게 문채를 이루니 옛날 작가의 모습과 방불하다. 만년에는 『산필(散筆)』(안중관이 지은 저술)의 뜻을 이어받아 삽교 산중에서 저술을 하였으니, 이름하여 『만록』이라고 하였다. 조화의 오묘함을 풀이하니 만물이 드러나 보이고, 인의의 광대함을 펼쳐내니 만사가 세워지고, 치란과 성패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중화와 이민족, 맑음과 사특함을 엄격하게 분별하는 것들은 정확한 말이 아닌 게 없다. 시속의 자질구레한 이야기들도 때때로 기록해 두었으니, 쓸데없고 잡스러운 데에 가깝지만 인륜의 법도를 이끌고 실천하는 일이 그 가운데에 있다. 그러므로 한가롭게 써내려간 기록이 아님이 분명하다.



『삽교별집』 서문.

안석임의 지적에서 보듯이, 『삽교만록』은 부친 안중관이 저술한 필기저술인 『산필』(현재 전하지 않음)의 뜻을 이어받아 강원도 횡성 삽교리에 은거하면서 집필한 책이다. 천문, 지리, 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치란(治亂)과 성패(成敗), 화이(華夷)의 구분에 대한 지적은 역사 사건과 인물에 대한 저자의 논평과 함께 중화주의에 관한 입장 표명 등이 『삽교만록』의 중요 내용의 하나임을 알려 준다. 시속의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이란 당시 시정공간에서 떠돌던 야담 등과 같은 이야기들을 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석임은 이 같은 이야기들을 속되다고 폄하하지 않는 데에서 『삽교만록』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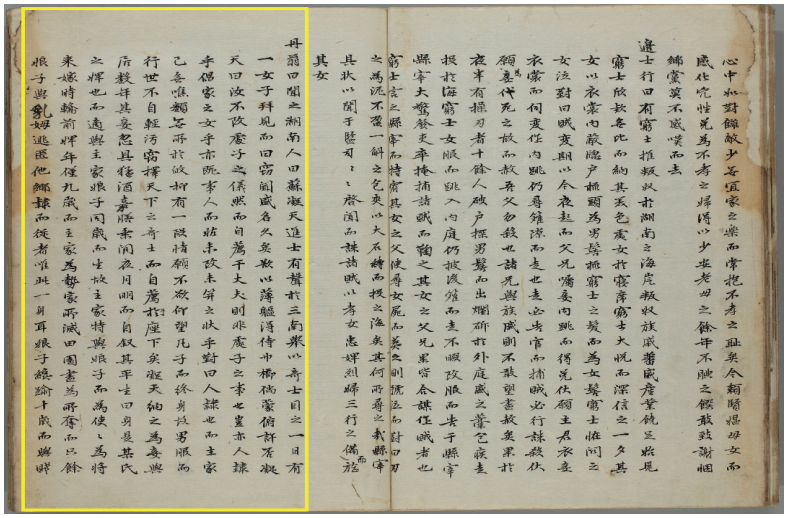
『삽교만록』에는 안석경이 쓴 서문이 실려 있지 않다. 대신 20세기 초에 목활자로 간행된 『삽교집』에 안석경이 쓴 자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삽교만록』의 저술 동기와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 내가 삽교에 살고 있을 때에 산이 깊고 계곡이 험하여 찾아오는 손님이 없었다. 그리하여 농사를 짓는 여가에 평소 남들과 주고 받았던 말들을 기록했다. 그때그때 기록을 해두어 질서가 없었지만, 어느덧 몇 책이 되었다. 어떤 이가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큰 것과 작은 것이 뒤섞여 있고, 정밀한 것과 거친 것이 잡스럽게 나열되어 있다. 어찌하여 거친 것을 삭제하고 정밀한 것을 취하며,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남겨두지 않는가?” 내가 사례하며 말했다. “모두 다 작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큰 것이 있겠으며, 모두 다 거친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정밀한 것이 있겠는가? 또한 도로부터 말한다면 크고 작으며 정밀하고 거친 것을 막론하고 모두 다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이다.”

안석경은 자신의 저술 『삽교만록』이 만년에 은거할 때에 그때그때 기록해 둔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사실, 일화, 이야기들까지 수록한 점을 비난한 혹자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도(道)’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잡스럽고 속되며 자질구레한 사실과 이야기 또한 마땅히 알아야 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삽교만록』에는 조선후기 야담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검녀(劍女)」와 같은 야담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당시를 살아갔던 다양한 인물들의 일화들을 다채롭게 실어 두었다. 시정 공간과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간과 세태, 풍속에 대한 저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반영한다.

『삽교만록』은 1986년에 아세아문화사에서 『삽교집』 하권으로 영인한 바 있다.



『삽교만록』「검녀」 일부.

4. 자료 가치

1) 서지적 가치

『삽교만록』은 동양문고 소장본 이외에 가장본으로도 전한다. 모두 필사본이며, 20세기 초에 간행된 목활자본 『삽교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가장본 『삽교만록』은 권1과 권2만이 남아 있고, 권3 이후는 전하지 않는다. 6권 5책의 형태로 전하는 동양문고 소장본이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2) 내용적 가치

『삽교만록』은 18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필기저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치, 경제, 역사, 문화, 학문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저자 자신의 견문과 의견 등을 수록해 두었다. 또한 『삽교만록』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갔던 필기산문의 변화상 및 야담 창작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작품집이다.

아울러 『삽교만록』은 안석경의 사유와 의식의 다양한 면모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높다. 당대 서민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대명의리론과 중화주의에 대한 노론계 지식인의 시국관을 엿볼 수 있으며,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다양한 인물의 일화와 경험들을 세세하게 기록해 두고자 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당대의 시국과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서부터 다종다양한 사회 변화상과 인간상의 모습들을 흥미롭게 서술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문집 『삽교집』에서 접할 수 없는 풍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 참고문헌

윤지훈, 「18세기 필기의 일양상 고찰」, 『동방한문학』 제32집, 동방한문학회, 2007, 305-336면.
이명학, 「한문단편 작가로서의 안석경」, 『이조후기 한문학의 재조명』, 창작과비평사, 1982.
임형택, 「삽교집 해제」, 『영인본 삽교집』, 아세아문화사, 1986.